

제 8회 5·18정신계승 전국 그림그리기 글쓰기 대회

학 생 부 일 반 부
(유·초·중·고) (대학생·성인)

주최·주관 :  5·18기념재단 The May 18 Foundation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후원 : 국가보훈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행사 목적

- 5·18관련 주제로 그림과 글쓰기를 통해 국민적 관심과 민주화운동 이미지 제고 및 5·18 정신 전국화
-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원들이 주먹밥 나눔 행사를 통하여 5·18정신인 대동정신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행사 개요

- 주 제 : 제8회 5·18정신계승 전국 그림그리기·글쓰기대회
- 일 시 : 2025. 5. 31. (토) 09:30~16:00
- 개 회 식 : 5. 31. (토) 10시~10시30분
- 장 소 : 5·18기념공원 내 대동광장(서구 상무민주로 61)
- 참가부문 : 그림그리기/글쓰기
- 참가대상 : 학생부(유·초·중·고), 일반부(대학생·성인)
- 참가비 : 없음
- 심사일자 : 6. 5. (목) 5·18기념문화센터 소회의실
- 수상자발표 : 6. 9. (월) 5·18유족회 홈페이지
- 주최·주관 :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 후원 : 보훈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세부 사항

공동주제 그림그리기/글쓰기-당일 현장에서 발표

세부사항

그림그리기 부문 [학생부/일반부]

- ▶ 구분 :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생화 및 자유주제 택1
- ▶ 재 료 : 크레파스, 수채화, 유화, 애니메이션, 동양화 등
- ▶ 도화지 : 주최 측 제공
- ▶ 준비물 : 개인 화구지참, 돗자리지참, 개인간식 지참
- ▶ 참가비 : 없음 *당일 현장접수 가능

글쓰기 부문 [학생부/일반부]

- ▶ 구 분 :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유주제 택1
(원고지 10매 이내, 편지글·수필·시)
- ▶ 준비물 : 원고지는 주최 측 제공(필기구, 개인 돗자리 필수 지참)
- ▶ 참가비 : 없음 *당일 현장접수 가능

참가대상

- ▶ 학생부 / 유·초·중·고(다문화가족·장애아동 포함)
- ▶ 일반부 / 대학생·일반성인

특별행사

오월 주먹밥나누기 이벤트

- ▶ 내용 : 오월 대동정신을 상징하는 주먹밥 나누기
- ▶ 일시 : 12:00 ~ 13:00
- ▶ 장소 : 주먹밥 행사장
- ▶ 대상 : 참가자 누구나(가족포함)
- ▶ 봉사요원 :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임·직원 및 회원

기타사항

- (1) 작품 제작에 필요한 화구, 필기구, 돗자리는 참가자가 준비함.
- (2)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5·18민주유공자유족회로 귀속함
- (3) 직인이 찍히지 않은 작품은 무효처리함
- (4) 참가자 본인 외 작품제작 발견 시 무효처리함
- (5) 참가자 본인의 노력이 아닌 작품은 심사에서 감점 대상임

제8회 5·18 정신계승
전국 그림그리기·글쓰기 대회

수상
내역

구 분	부 문	상 격	훈 격(인원)	성 명
그림 그리기	통합	대상	국가보훈부장관상(1명)	박희태 (전남중 3)
	일반부	최우수상	전라남도지사상(1명)	모민진
		금 상	전라남도교육감상(1명)	유연자
		은 상	광주지방보훈청장상(1명)	문영국
		동 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상(2명)	양동준 신은영
	학생부	최우수상	광주광역시장상(1명)	조환의 (효동초 6)
		금상	광주광역시교육감상(1명)	김강윤 (예술중 1)
		은상	광주지방보훈청장상(1명)	박세영 (전남중 2)
		동상	5·18기념재단 이사장상(2명)	김리오나수 (광주여상 1) 문희은 (광주서초 6)
		장려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상(2명)	이하규 (효동초 3) 고경원 (주월초 5)
합계		13개		

구 분	부 분	상 격	훈 격(인원)	성 명
글쓰기	통합	대상	국가보훈부장관상	구은울 (동명중 3)
	일반부	최우수상	전라남도도지사상	이종하
		금상	전라남도교육감상	김영희
		은상	광주지방보훈청장상	백지연
		동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상(2명)	김보현 김종완
	학생부	최우수상	광주광역시장상	차민서 (화정중 3)
		금상	광주광역시교육감상	홍세민 (주월초 3)
		은상	광주지방보훈청장상	장소울 (살레시오초 4)
		동상	5·18기념재단 이사장상(2명)	박지민 (월봉중 1) 박지유 (월봉초 4)
		장려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상(2명)	김해윤 (조봉초 3) 홍서연 (대자중 2)
합계	13개			

인사말

오늘 우리는 펜과 붓을 들고, 오월을 기념하는 대동광장 앞에 섰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를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국가폭력 앞에서, 시민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해 온몸으로 외쳤습니다. 그날의 외침은, 45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남길 한 줄의 문장, 한 점의 그림은, 단순한 창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이고, 저항이며, 진실과 희망을 이어주는 또 하나의 역사입니다. 예술은 기억을 지키고, 기억은 미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헌정질서가 위협받고, 상식과 정의가 흔들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기억으로 저항하고, 예술로 말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그림과 글로, 청소년은 질문과 참여로, 어른은 선택과 책임으로, 각자가 이 시대의 빛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우리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오월의 정신을 되새기고,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어린 참가자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순수한 눈과 마음으로, 진실을 그리고, 써 내려가며, 새로운 역사를 이어갈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대회가, 우리 모두의 기억이 살아 숨 쉬는 예술의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진실을 지키는 예술가, 정의를 말하는 작가가 태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색과 언어, 시선과 사유가,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5. 31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 장 양재혁



축 사

꽃 피는 봄, 푸른 5월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45년 전, 광주에서 서로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이들의 마음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오는 따뜻한 계절입니다.

〈제8회 5·18정신계승 전국 그림그리기·글쓰기 전국대회〉는 여러분이 느끼고 생각하는 '오월'을 그림과 글로 자유롭게 표현하며 5·18의 의미를 본인의 시선으로 되새기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은 누군가의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고자 했던 마음, 더 나은 세상을 바랐던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대회는 5·18을 생각하며 그려진 그림과 써 내려간 글에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또한, 진심을 담아 새하얀 종이에 펼쳐질 작품들은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회가 경쟁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오월의 정신을 함께 나누고, 연대와 희망을 그려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5. 31

5·18기념재단
이사장 원순석



5·18정신계승 전국 그림·글쓰기 대회 31일 개최

✎ 김영광 기자 | ⓒ 승인 2025.05.30 15:01

5·18기념공원 대동광장



45주년 5·18 묘지 가독 찬 추모객

18일 오전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에서 추모객들이 묘소를 참배하며 5월 영령의 넋을 기리고 있다. 2025.5.18 [공동취재]

오월 정신을 기리는 '제8회 5·18정신계승 전국 그림·글쓰기 대회'가 오는 31일 광주 서구 5·18기념공원 대동광장에서 개최된다.

행사는 유·초·중·고등학생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미래 세대에 오월 정신을 이어나가게 하는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 행사다.

45주년 5·18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오월 행사이기도 한 이번 대회는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유족들로 구성된 공법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개최한다.

국가보훈부, 광주시, 전남도,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이 대회를 후원한.

이번 대회는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진행하던 지난해와 달리 5·18기념공원에서 처음 개최한다.

5·18을 경험했던 기록과 증언을 통해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글과 그림이라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대회는 그림 부문과 글쓰기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주제는 당일 현장에서 발표된다.

그림 부문은 물감, 색연필, 크레파스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예시된 주제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글쓰기 부문은 발표된 주제를 중심으로 산문, 시, 수필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 시민은 사전 접수뿐만 아니라, 당일 접수를 통해서도 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심사결과는 오는 6월 9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며 선정된 우수작품은 상장과 문화상품권이 수여된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5·18 정신 계승 전국 그림·글쓰기 대회를 통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이끌어 갈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불행했던 역사를 기억하고 5·18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겨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예술로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광 기자

심사평 - 이재연

"아픔과 고통의 시간은 잊히지 않고 기억됨으로서 그 아픔을 극복하며 오월 정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4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다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비상계엄이 또 다시 이 땅에 선포되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오류일 때는 특히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모두 같을 것 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러한 오류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5.18민주화 운동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일환의 하나로 5.18 정신계승 전국 그림그리기와 글쓰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구은율의 작품에 눈길이 갔습니다.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현장을 중심으로 계엄 군인이었던 두 형제의 이야기가 무리 없이 전개됩니다. 선량한 시민을 향해 폭력의 주체가 되어야 했던 계엄군의 내면 갈등을 통해 광주의 진실에 접근하면서 두 형제의 비극적 상황이 펼쳐집니다. 80년 5월의 그 비극적 상황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금의 현실로 이어진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크게 흠잡을 데 없는 우수한 작품이었습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차민서의 작품은 80년 광주 5월을 목격한 9살 아이를 화자로 내세운 작품입니다. 물론 작품 속의 화자는 45년이 흐른 후이니 이미 중년이 넘은 나이가 되어 광주의 오월을 해설하는 사람으로서 전남도청 분수대 앞에 서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80년 광주의 오월은 오답노트입니다. 그 오답 노트를 통해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을 잘 극복해 내었다는 주제에 무리 없이 도달하고 있습니다.

운문에서도 꽤 좋은 작품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월 초등학교 3학년 홍세민 학생의 「맛있는 주먹밥」은 일상적인 상상력을 통해 오월의 주먹밥이 상징하는 의미를 형상화하는 데에 표현의 과잉 없이 크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붉은 오월의 잠」 등 초등부 중등부의 운문도 주목할 만 했습니다.

위는 학생부의 작품들을 위주로 언급했다. 80년 광주 오월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광주 오월 민주화 운동의 현장성과 그 정신 가까이에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작품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픔과 고통의 시간은 잊히지 않고 기억됨으로서, 그 아픔을 극복하며 오월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심사평 - 전용호

"참신한 발상과 은은하게 드러나는 주제"

벌써 오월항쟁이 발발한지 45년이 흘렀습니다. 올해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백일장 작품들을 보니 5.18항쟁이 불과 몇 년 전에 발발한 듯 싱싱한 감각으로 채워져 있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구은율 학생의 작품은 45년 전 계엄군의 입장에서 서술한 참신한 발상과 구성으로 대화체를 활용한 서술력이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일반부 최우수상 이종하 작품은 발상의 참신성, 양호한 구성력과 5.18을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표현력이 좋았습니다. 금상 김영희 작품은 양호한 표현과 운율과 리듬이 뛰어나고, 은상 백지연 작품은 창의성과 서술 능력이 양호하였습니다. 동상 김종완 작품은 5.18을 담담하게 서술한 산문이지만 시처럼 리듬을 갖추었고, 김보현 작품은 양호한 구성에 운율과 리듬을 갖추었습니다.

학생부 최우수상 차민서 작품은 발상이 참신하고 창의력이 좋아 독자의 관심을 끌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금상 홍세민 작품은 참신한 발상과 주제를 은은하게 드러내는 표현력, 은상 장소울 작품은 영화 속의 장면을 통하여 5.18을 차분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동상 박지유 작품은 참신한 발상과 운율과 리듬을 잘 갖추었고, 박지민 작품은 주제 전달이 양호하고 운율과 리듬을 갖추었습니다. 장려상 홍서연 작품은 시처럼 운율을 지닌 산문으로 김해윤 작품은 참신한 발상과 운율과 리듬이 양호하였으나, 쓰다 만 것처럼 짧은 서술이 아쉬웠습니다.

민주주의와 평화, 대동세상을 상징하는 오월항쟁을 글쓰기로 다시 기억하는 유족회의 백일장은 참으로 뜻깊은 행사로 앞으로도 계속되길 기원합니다.



수상자 명단



글쓰기부문

통 합 ◇ 대상(국가보훈부장관상) 구은율

일반부 ◇ 최우수상(전라남도지사상) 이종하

◇ 금상(전라남도교육감상) 김영희

◇ 은상(광주지방보훈청장상) 백지연

◇ 동상(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상) 김보현

◇ 동상(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상) 김종완

학생부 ◇ 최우수상(광주광역시장상) 차민서

◇ 금상(광주광역시교육감상) 홍세민

◇ 은상(광주지방보훈청장상) 장소울

◇ 동상(5·18기념재단 이사장상) 박지민

◇ 동상(5·18기념재단 이사장상) 박지유

◇ 장려상(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상) 김해윤

◇ 장려상(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상) 홍서연

"오월, 오늘을 여는 문, 세상의 빛으로!"

대상(국가보훈부상)

구은율

평. 폭발음과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주변은 온통 잿빛이고 사람들은 피로 물들었다. 두렵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다. 움직여야 하는데 몸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야, 이 새끼야! 움직이라고!”

그제야 몸이 움직인다.

“아, 죄, 죄송합니다.”

“닥치고 어서 진압이나 해”

나는 진압봉을 들고 광주거리를 뛰어 다닌다. 내가 이곳 광주에 있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국가의 안전을 위해 폭도들을 진압하는 것. 대원들이 내게 그랬다.

나는 한 번도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다. 개미 한 마리조차 죽이지 못하는 내가 어찌 사람을 죽이겠는가. 아무리 이들이 국가를 위협하는 폭도들이라도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벌써 이곳에 온 지 사흘째다. 용케도 소령님과 다른 부원들은 내가 단 한명도 죽이거나 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른다. 그랬는데 어제 부대 동기인 상철이 놈이 소령님께 고발했다.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다. 우리 부대는 아니지만 며칠 전 친척집이 전라도인 이등병 하나가 명을 거부하여 어딘가로 사라졌다는 얘기가 있다. 말만 사라졌는지 암만 봐도 죽은 게 분명하다. 국가를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지만 군대는 생각보다 더욱 무섭다. 사람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막 죽인다. 아무리 임무라 하지만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나 많이 죽이는 건지....

그저 이 상황이 어서 끝나기를 바랄뿐이다.

“야 김도승, 소령님께서 부르신다.”

상철이가 웃으며 내게 말한다. 그 미소는 어찌나 사악한지 열이 오른다.

떨리는 마음으로 집무실에 들어간다.

“도승아, 아래에서 들려오는 말로 보아 네가 상부의 명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

“죄,...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떨고 있어, 형이 도와줄게. 괜찮다”

“죄송합니다.”

“나는 우리 도승이를 믿고 있는데, 날 부끄럽게만 만들지 말아라”

“네....”

“그래그래. 가봐라”

나의 형은 우리 부대의 소령님이자 나의 유일한 가족이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일찍 돌아가셔서 형은 나의 유일한 보호자였다. 나는 항상 형이 고맙기도 미안하기도 하다. 그렇기에 이제부터 정말 사람들을 때리거나 죽여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형을 위해서라면, 형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죽여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형을 위해서라면, 형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나도 더 이상은 어쩔 수 없다.

‘그래, 눈 꼭 감고 그냥 한명만, 한명만이라도 진압하면 될 거야’

그렇게 한명이 두 명이, 두 명이 네 명이, 네 명이 어느새 열 명이 되었다. 이쯤 되니 내안에 애초에 죄책감이 라는 감정은 없었던 것 같다. 오늘도 광주 시민들을 진압하러 나왔다.

사람의 형체가 보이자 나는 눈을 꼭 감고 그를 향해 대검을 들고 향한다.

“아악!”

여성의 비명과 함께 내 얼굴에 붉은 액체가 묻었다. 눈을 떴다. 온몸이 피로 덮인 여성의 옆에 어린 소녀가 있었다. 몸이 소름끼치게 떨리기 시작했다. 소녀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른다. “엄마아! 엄마!!!”

나는 어서 그 자리를 피한다. 머릿속은 온통 그 장면이다. 눈을 뜨면 어린 소녀가 의식 없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있다. 괴롭다. 미치겠다. 미친다는 기분이 이런 건가 보다.

“아아아악”

대검을 들고 보이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찌른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봐도 더 이상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 이건 정말 나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데 누가 나의 다리를 잡는다.

“살...살려주세요.... 집에 어린 딸이, 홀로 있어요”

너무 괴롭다. 괴로워서 미치겠다. 내가 누군가의 가족을 죽였다.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들이 빨갱이건 폭도이건 이젠 모르겠다. 오늘부로 그만할 거다, 형한테 말할 거다. 광주에서 어서 떠나고 싶다고, 지긋지긋한 계엄군,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그 날 저녁 아무도 모르게 형의 집무실에 들어갔다.

‘아 젠장, 누가 있잖아’

그가 갈 때까지 문 뒤에 숨어 있기로 했다. 형이 굶신굶신거리는 걸로 보아 꽤나 높은 사람인가 보다.

“여단장님, 이제 그만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병사들은 광주를 비롯한 전라도 사람들이 다 빨갱이라고 생각하여 무차별하게 보이는 사람마다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모르겠나. 어쩔 수 없다.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지, 약속했으니 날 믿어라. 광주가 진압되면 널 높은 자리에 올릴 테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분명 광주 사람들은 빨갱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다면 국가는 우리를 속인 것이다. 우리를 속여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했다. 분노가 온몸을 휩쓴다.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여단장님이 나갈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

나는 형을 믿기에.

“도승아, 무슨 일이야?”

“형, 아니지?”

“뭐가?”

“광주 사람들이 빨갱이도 폭도도 아니라는 거”

형의 입가에 미소가 사라졌다.

“너... 이거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이건 너와 나의 비밀이야. 누구한테 입이라도 뺏끗한다면 넌 이제 내 동생이 아니다.”

사실이였다. 우리는 그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을 죽였다. 무던해진 줄 알았던 나의 죄책감이 다시 내 머릿속을 깊게 채운다.

“하하하하하”

그저 웃음만 나왔다.

“도...도승아, 그게....”

“형을 믿었는데.”

형이 내게 이 부대에 들어오라고 한 것부터 의심했어야 했다. 난 형의 허리춤에 있는 총을 들고 내 머리 쪽에 겨누었다.

“도승아! 김도승! 이러지 마라. 형도 어쩔 수 없....”

탕! 탕탕

세 발의 총을 내 머리에 발사했다.

"오월의 함성은 내 심장에 있다"

최우수상(전라남도도지사상)

이종하

1980년 5월 어느 가난한 부부의 단칸방에도 5월의 함성은 울려 퍼졌다. 새벽이면 시민들을 살려달라는 가냘픈 여학생의 목소리가 가난한 아빠의 마음을 파고들어 괴롭게 했고, 밤이면 멀리서 들려오는 총성소리가 임신 8개월 만삭의 어미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새벽이면 시위대에 동참하려는 아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엄마는 ‘나가면 죽는다고!’ 어린 두 자식에 배에 든 아이까지 아이 셋을 내가 혼자 어떻게 키우냐고, 그렇게 말리고, 그렇게 붙잡고 그래서 아빠는 눈물을 몰래 감추고 어두운 단칸방에 우두커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했다.

그렇게 80년 오월 그날의 함성과 그날의 총성 속에 나의 심장은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그렇게 태어난 작은 심장은 어느새 조금씩 자라 초등학생이 되었다. 교과서에 적혀 있던 5·18은 엄마 아빠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엄마, 아빠가 국민투표라는 것을 하고 온 후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되었고 낡은 흑백 TV에 서는 광주 5·18 청문회 방송이 밤새 재방송 되었다.

그렇게 작은 심장은 5·18민주화운동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고 조금씩 더 자라갔다. 코가 시큰해지는 오후가 되면 ‘학생 형, 누나들이 시위라는 걸 하는구나!’ 전경들이 최루탄가스를 쏘는구나, 그런 애기들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며 그 가스를 함께 마시고 그렇게 함께 컸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많은 열사들의 피와 땀이 얼룩진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이전하는 것을 보며, 상무대가 이전해 장성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며, IMF가 터져 많은 엄마, 아빠들이 실직을 당하고, 금모우기 운동을 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세월이 흘러 작은 심장은 성인이 되었다. 5·18의 그 많은 함성과 눈물과 땀을 함께한 채로....

그래서 오월의 함성은 내 심장에 있다. 광주 시민들을 도와달라던 어느 여학생의 목소리로, 5·18 진상규명을 외치던 대학생들의 함성으로 광주를 위해 피 땀 흘려 일한 어느 노동자들의 땀으로....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소설 속 주인공 문재학 열사의 피로, 시민군의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의 목소리로, 밤새 등사기를 돌렸을 들불야학 열사들의 땀으로, 양동시장 어머니들의 주먹밥으로 지켜진 광주 정신과 공동체 정신으로 작은 심장은 그렇게 자라 벌써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고 아이에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잘 모르는 누군가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물으면, 나는 5·18 민주화운동은 나이고, 우리이고, 광주라고 말한다.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5·18 민주화운동의 함성은 광주의 아이들을 때로는 민주화운동의 열사로 노벨문학상을 받는 작가로 유명한 스포츠 스타로 길러내었고, 12.3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 앞으로 달려간 광주시민으로 길러내었다.

국회의사당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함성과 응원봉과 깃발들 속에서 나는 내 심장 속에서 꿈틀거리는 오월의 함성을 들었고 또 보았고, 또 느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심장 속에서 꿈틀거리는 오월의 함성이 누군가의 아픔으로 누군가의 눈물로만 기억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을 이끄는 힘으로 광주의 정신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월의 함성과 함께 자라오고 이제 나이 먹어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날이 오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 속에 심장이 되어 숨 설 수 있도록.

"목격자"

최우수상(광주광역시장상)

차민서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옛 전남도청 분수대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이곳에서, 그리고 저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매일 5시 18분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노래하곤 하지요. 이곳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들, 심지어 외국인들도 볼 수 있지요. 그 모두에게 저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시끄럽게 떠들던 어린 아이들도 제게 집중하지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에게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할 준비 되셨죠?

먼저 제가 여기 서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아주 어렸을 적, 음...아마 거의 신생아 때 일본에서 왔습니다. 일본인이 대체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1980년 5월 18일 그날, 바로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목격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목격자라는 이유로 신군부에 강제로 끌려가 농성광장에 서 있어야만 했어요. 비로소 44살이 되어서야 많은 시민 분들의 도움을 받아 여기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죠.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죠.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54살이 된 지금까지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 드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이쯤 되시면 도대체 무슨 일을 목격했기에 신군부에게 끌려갔는지 궁금하지요? 아마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1980년 5월 18일, 그날의 현장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는 9살이었죠.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의 독재를 막기 위해 광주시민들은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학생들만이 참여했고, 이후 전 연령대로 확대되었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용기 있는 함성이 광주 시내를 채웠죠. 그런데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두환의 명령을 받은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총을 쏜 것이죠. 그를 시작으로 광주 시내 10일 동안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어디 서든 시민들이 불안에 떠는 소리,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들의 통곡소리,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함성소리가 들렸죠. 아수라장이자 다름없었습니다. 그 난리 통에도 광주시민들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법을 지켰고, 아주머니들은 주먹밥을 만들어 주위의 시민들에게 나눠 주었죠. 하지만 계엄군들의 총 앞에 많은 목숨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계엄군으로 인한 사상자는 약 5000명이었고, 어린아이부터 임산부까지 희생자들은 무차별적으로 희생되었습니다.

항쟁이 진행된 10일 중 저는 5월 21일 1시를 잊을 수 없습니다. 항쟁이 격해지고 더는 참을 수 없던 시민들은 계엄군의 장갑차와 차량을 탈취하고 무기고를 점거하여 무장했습니다. 이는 시민군과 계엄군 사이의 총격전을 이끌었고, 특히 5월 21일 1시경 전남도청 앞에서의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5·18 항쟁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순간들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주시내는 피범벅이 되었고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일을 해오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듣곤 합니다.

“당신에게 5·18은 어떤 의미인가요?”

처음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5·18은 ‘오답노트’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돌이킬 수 없죠. 하지만 문제를 틀렸을 때 틀린 이유를 알고 기억해야 또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은 어땠는가요? 지난 1980년 틀렸던 문제를 이번에는 잘 풀어내었습니다. 그러면 된 거죠”

이제 여러분들께 남은 것은 오늘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며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5·18 시계탑입니다. 저는 항상 옛 전남도청 앞에 서있을 것 입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그날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갈 미래를 지켜보겠습니다.

심사평 - 이선복

"5·18의 아픔을 "희망과 평화로 승화"

5·18 민주화 운동은 군부 독재의 억압에 맞선 국민 저항의 상징이며 숭고한 정신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번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그리기 대회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평화, 인권,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시대의 아픔을 넘어 희망과 평화로 승화 시키고자 하는 큰 뜻을 담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중등부와 일반부 등 많은 참가자들은 어두웠던 80년 5월의 아픔을 딛고, 각자 자신들만의 해석과 창의적인 발상으로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유치부 부문에서는 다소 서툰 표현력임에도 불구하고 가식 없는 순수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희생된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는 메시지를 솔직하게 표현하였으며, 초등부와 중등부 부문은 주제 표현과 이해도에 있어서 성숙되고 창의성 높은 수준의 작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부 대상으로 전남중 박희태 학생이 수상 했으며, 연필 단색화로 나무를 주제로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나무의 뿌리로 흡수시키고, 가지에 얹은 비둘기와 새로이 피어나는 꽃으로 상징화하여 새로운 민주 국가의 탄생을 창의적 발상으로 표현 했습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효동초 조환의 학생은 희생된 영혼들의 형상을 극적인 명암 대비의 인물들을 화면의 전면에 수평으로 나열하여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모습으로 행진하고 있으며, 화면의 하단에는 우리나라의 산천에 피어나는 다양한 아름다운 풀꽃들로 장식해 희생된 영혼을 달래주는 형상으로 은유된 상징성으로 뛰어난 조형 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반부는 학생부에 비해 참가자가 적어서인지 다양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모민진 참가자의 작품은 양손으로 움켜쥔 손 안에 햇불을 든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냄으로써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대를 이끌어낸 창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이루어진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그리기 대회의 결과물들로 그 정신을 고취시키는 공감대가 더욱 발전되고 내실화 되도록 관계 기관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심사평 - 윤정규

"그림으로 잇는 5·18의 정신, 그리고 희망"

제8회 5·18정신계승 전국 그림그리기 대회 참가 작품을 위한 심사 느낌을 피력해 봅니다.

먼저, 일반부의 작품 수가 너무 적어 아쉬움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학생부는 100여명이나 되어서 미래의 주인공들에게는 관심과 열정을 느끼는 대회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작품의 심사 시 공정성과 명쾌한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심사 기준을 숙지하고, 창의성, 작품성, 완성도를 전체적으로 살피고, 나이와 5·18의 정신함양 관련여부 등을 기준으로 적용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대상 수상작은 학생부의 박희태라는 중학생 작품이지만 정교함과 상징성을 조화롭게 표현한 개성적 작품이어서 일반부와 경합을 거쳐 2025년도 대상 작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일반부 금상을 받으신 유연자님은 고령의 연세에도 열정적인 참여로 멋진 작품을 보여준 인상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참여 인원이 많아졌고, 특히나 중등 학생의 경우는 작품 수준들이 높아 희망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일반부와 고교생들의 참여 인원이 많아지고, 더욱 멋진 대회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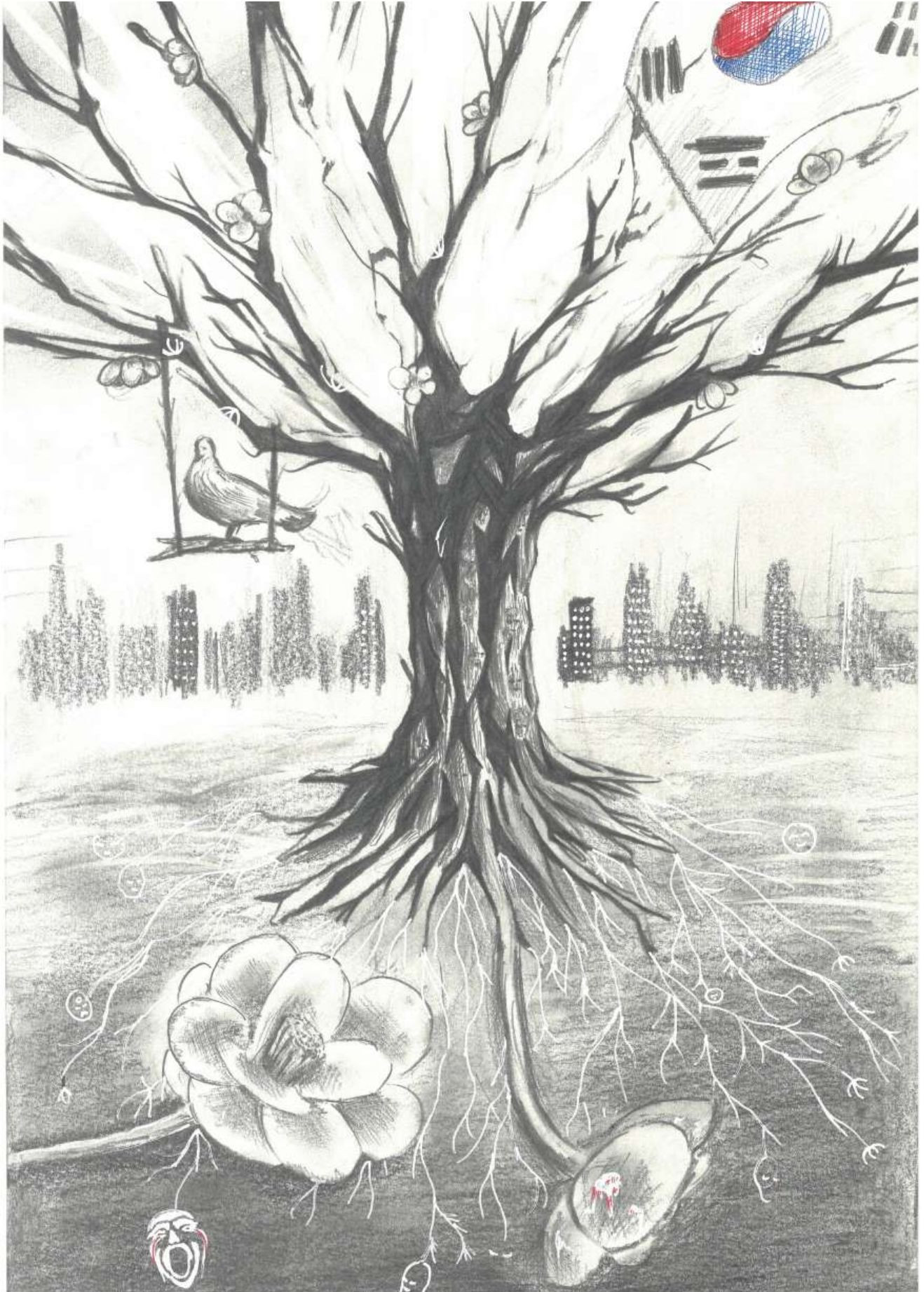
수상자 명단

그림그리기부문

통 합 ◇ 대상(국가보훈부장관상) 박희태

일반부 ◇ 최우수상(전라남도도지사상) 모민진
◇ 금상(전라남도교육감상) 유연자
◇ 은상(광주지방보훈청장상) 문영국
◇ 동상(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상) 양동준
◇ 동상(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상) 신은영

학생부 ◇ 최우수상(광주광역시장상) 조환의
◇ 금상(광주광역시교육감상) 김강윤
◇ 은상(광주지방보훈청장상) 박세영
◇ 동상(5·18기념재단 이사장상) 김리오나수
◇ 동상(5·18기념재단 이사장상) 문희은
◇ 장려상(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상) 이하규
◇ 장려상(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상) 고경원



대상-국가보훈부장관상

박희태(학생부)



최우수상(광주광역시장상)

조환의(학생부)



최우수상(전라남도지사상)

모민진(일반부)

제8회 5·18정신계승

전국 그림

그리기

&

글쓰기

대회



대회 사전접수 바로가기

문의 062) 383-5180

※ 참가비 무료 ※ 당일 현장 접수 가능

일시 : 2025. 5. 31.(토) 9:30~16:00

장소 : 5·18기념공원 내 대동광장(5·18기념문화센터 뒤)

제출 작품은 반환되지 않으며 입상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주최측에 있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천 등 기타사정으로 대회 일정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구글폼을 통한 온라인 사전접수 (QR) 및 당일 현장접수
※ 구글폼 사전 접수자 기념품 증정

참가부문 그림그리기/글쓰기(원고지 10매 이내)

참가대상 학생부 (유·초·중·고)
일반부 (대학생·성인)

준비도구 개인 지참 : 돗자리, 화구·필기구, 간식 등
주최측 제공 : 도화지 및 원고지

주 제 대회 당일 현장 발표

수상발표 2025. 06. 9(월) 5·18유족회 홈페이지

특별행사 오월 주먹밥나누기
(일시: 12:00~13:00 / 대동광장)

시 상 내 역

부 문	상 격	훈 격	인 원	부 상(상 금)
그 림 그 리 기	통 합	대 상	국가보훈부장관상	1 상장+500,000
	일 반 부	최우수상	전라남도지사상	1 상장+300,000
		금 상	전라남도교육감상	1 상장+250,000
		은 상	광주지방보훈청장상	1 상장+150,000
		동 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상	2 상장+100,000
	학 생 부	최우수상	광주광역시장상	1 상장+250,000
		금 상	광주광역시교육감상	1 상장+200,000
		은 상	광주지방보훈청장상	1 상장+150,000
		동 상	5·18기념재단이사장상	2 상장+100,000
		장 려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상	2 상장+50,000
글 쓰 기	부 문	상 격	훈 격	인 원
	통 합	대 상	국가보훈부장관상	1 상장+500,000
	일 반 부	최우수상	전라남도지사상	1 상장+300,000
		금 상	전라남도교육감상	1 상장+250,000
		은 상	광주지방보훈청장상	1 상장+150,000
		동 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상	2 상장+100,000
	학 생 부	최우수상	광주광역시장상	1 상장+250,000
		금 상	광주광역시교육감상	1 상장+200,000
		은 상	광주지방보훈청장상	1 상장+150,000
		동 상	5·18기념재단이사장상	2 상장+100,000
		장 려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상	2 상장+50,000

개회식



제8회 5·18정신계승
국 그림그리기·글쓰기 대
 2025.5.31(토) 09:30 ●장소: 5·18기념공원 대동광장 ●주최·주관: [Logos]



(토) 09:30 ●장소: 5·18기념공원 대동광장 ●주최·주관: [Logos]



제8회 5·18정신계승
전국 그림그리기·글
 ●일시: 2025.5.31(토) 09:30 ●장소: 5·18기념공원 대동광장 ●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주먹밥 나누기





제8회 5·18 정신계승 전국 그림그리기·글쓰기 대회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

미션 민주·인권·평화를 바탕으로 다음세대를 위한
(MISSON) K-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하겠습니다.

기억과 추모 사업

- 오월추모 지원 사업
- 민주·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사업

교육·문화 사업

- 민주·인권·평화 향상을 위한 문화콘텐츠 사업
-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사업

사회공헌 사업

-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 사회복지 사업
- 시민과 함께하는 보훈 사적지 교육 플로깅 사업

기부자 예우

- 기부자 감사의 날
-기부자 초청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
- 기부자 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보훈행사 초청
-오월기념품 전달

후원문의

- 후원 전용 계좌 :
농협은행 301-0363-8658-41
예금주 : 5.18민주유공자유족회
- 후원 관련 연락 :
전화 | 062-383-5180
메일 | 5180family@naver.com

**제8회 5·18 정신계승
전국 그림그리기
글쓰기대회**